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컨트롤 보완… 내년시즌엔 가을전설 쓴다

임준섭

호랑이 마운드 샛별 좌완 임준섭…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서 '당당한 에이스' 도전

KIA의 좌완 임준섭이 돌아보는 2013시즌은 '시작이 끝'이다.

"1군에만 붙어있자"는 바람으로 시즌을 시작했던 임준섭에게 올 한해는 기대 이상의 시즌이지만 아쉬움의 시즌이기도 하다.

임준섭은 지난해 경성대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프로 2년차 투수다. 올 시즌 깜짝 선발로 눈길을 끈 선수지만 임준섭에게 남아있는 프로 첫 해의 기억은 수술과 재활이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임준섭은 그라운드 밖에 머물러야 했다.

지난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조금씩 임준섭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KIA에는 귀한 좌완 투수, 변화무쌍한 볼 끝 그리고 두둑한 배짱이 임준섭의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임준섭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에이스 윤석민의 부상과 앤서니의 마무리 이동에 의한 마운드 공백으로 임준섭에게 덜컥 선발 자리가 주어졌다.

2013년 4월 3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와의

■ 올시즌 성적표

● 평균 자책점 5.23

● 4승8패 2홀드

● 105이닝(팀내 3위)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임준섭은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기록으로 승을 따내며 단숨에 마운드의 샛별로 떠올랐다. 프로 데뷔 첫 경기에서의 선발승. 지난 2002년 김진우에 이은 11년 만의 팀 기록이었다.

팬들의 마음을 흔든 승리였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어리둥절했던 승리다.

임준섭은 "사실 그때는 첫 등판이라 정신도 없었고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승리투수가 되어 있었다"고 웃었다.

출발은 화려했지만 2승으로 가는데 두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1군 선수들을 압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선발과 중간을 오가면서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다. 6월 11일 NC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승리를 추가한 임준섭은 8월 25일(넥센), 9월 25일(롯데)경기에서 4승을 챙기며 시즌을 마감했다. 5.23의 평균자책점. 승보다 더 많은 8패와 2홀드가 임준섭의 프로 첫 성적표다.

첫 시즌에서 팀내 세 번째인 105이닝을 던지며 "1군에 붙어있자"던 목표를 이루기는 했지만 당당히 내세우기에는 아쉬운 성적이다. 컨트롤 난조도 꾸준하게 언급됐던 문제다.

임준섭은 "적응하려고 하니까 시즌이 끝난 것 같다. 처음에는 뭘 모르고 경기를 했다. 그저 공만 던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즌 막바지에 오면서 비로소 경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타자들을 알고, 타자들도 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승부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벌써 시즌이 끝나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도 첫 승을 기록했던 한화전이 아니라 4승째를 기록한 롯데전이다.

임준섭은 "내가 생각하고 던지고 싶은 대로 뜻대로 풀어갈 수 있었던 경기였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22일 임준섭은 일본 오키나와에 짐을 풀었다. 본격적인 마무리 캠프가 시작된 것이다. 임준섭의 진짜 야구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임준섭은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수술 후 공을 많이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캠프가 나에게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수술 여파로 뒤늦게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하고, 할 수 있다. 알찬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심판 양성과정 개강

KBO내달 8일부터

야구팬과 아마야구 심판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심판 양성과정'이 열린다.

KBO, 대한야구협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와 명지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기 야구심판 양성과정'이 오는 11월 8일 개강한다.

명지전문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과 아마야구 심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과정은 매주 금·토·일 10주간 160시간의 교육으로 이뤄지며 수강료는 30만원이다. 전문과정은 5주간 총 64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다.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서류 심사 후 11월 2일 개별 통보된다. (문의 :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edu.mjc.ac.kr, 전화 02-300-3981)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고 안방마님 박경완 은퇴

SK 2군 감독 새 출발

프로야구 당대 최고의 포수로 이름을 날린 박경완(41)이 현역 은퇴와 동시에 소속팀 SK 와이번스 2군 (퓨처스) 감독으로 새 출발한다.

SK 구단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박경완을 2군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2군 선수를 지도한 김용희 2군 감독은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책임지는 육성총괄 겸 스카우트 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해 올해까지 23년간 활약한 박경완은 타자의 허를 찌르는 영리한 수 읽기와 볼 배합으로 시대를 평정한 역대 최고 안방마님이다.

박경완은 이승엽(삼성·358개), 양준혁(은퇴·351개), 장종훈(은퇴·340개), 심정수(은퇴·328개)에 이어 역대 통산 홈런 5위이자 포수로는 최다 홈런을 남겼다. 또 현대에서 뛰던 2000년 5월 19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국내 최초로 4연타석 홈런을 치며 새 이정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장애물 경기 물 웅덩이 폴짝

2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고등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전남 김성열(영광 해룡고 2년) 등 각 시·도 대표선수들이 힘차게 물웅덩이를 뛰어넘고 있다. 경북 석종진(영주 동산고 3년)이 1위(9분10초75)로 골인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박주영의 노장 투혼

마라톤 선수 최초 전국 체전에서만 3번째 우승 레이스

"우승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뛰고 싶습니다."

전남 박주영(33·한국전력)은 지난 20일 마라톤 풀코스에서 2시간24분24초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국 육상선수 최초로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 전국체전 풀코스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이었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가 고향인 박주영은 도초 서초등학교 항성분교 6학년 때 유영록 교사의 권유로 육상에 입문했다. 초등~고교까지는 주로 중·장거리를 뛰었으나 한국체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다. 대학 3~4학년 때 하프코스를 2연패 했다.

그는 목포 기계공고 1년때부터 대학과 삼성전자, 상무 체육부대를 거쳐 한전으로 소속을 옮긴 현재까지 15차례 이상을 애향심에서 줄곧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왔다. 이날 경기 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박주영에게 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주영은 "처음과 마지막 고가도로를 빼고는 코스 대부분이 평지여서 편하게 뛰었다"며 "내년 상반기에 좋은 기록을 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여고생들 17년만에 조정서 금빛 물살

〈광주체고 박예리·유혜령〉

유도 장성호 무제한급서 3연패

광주 금 24·은 36·동 52…전남 금 28·은 39·동 35

광주 여고생들이 17년 만에 조정 더블스컬(2인조·Double scull) 종목에서 광주에 금메달을 안겼다. 전남도 쿼드러플 스컬(4인조)과 무타(無舵) 페어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 1개씩 획득했다.

94회 전국 체육대회 열전 5일째인 22일 광주체고 박예리(2년)·유혜령(3년) 조는 경기도 용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여고부 더블스컬에서 8분18초25의 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더블 스컬은 2명의 선수가 탑승해 좌우 노 4개를 저어 2㎞ 거리를 경주하는 종목이다.

이번 메달은 1997년(78회 경남 전국체전) 처음 신설된 더블스컬 종목에서 광주선수가 17년 만에 따낸 첫 금메달이다. 특히 광주체고 조정팀 신영금 감독(당시 광주체고 3년)이 같은 대회 무타페어에서 금메달 획득한 지 17년 만에 맛본 고등부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박예리는 싱글스컬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장성실업고와 문향고 조정팀도 더블스컬과 쿼드러플 스컬, 무타페어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 한종근·정경근(장성실업고) 조는 남고부 더블스컬에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장나영·신선하·고예령·김보미(장성문향고) 조도 쿼드러플 스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향고 신지예·고예령 조는 여고부 무타페어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유도와 스쿼시, 체조 종목에서도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다.

유도 장성호(광주선발)는 남자일반부 개인전 무제한급 결승에서 홍성현(경남도청)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2년과 2011년에 이은 3연패이다.

광주 강대봉은 개인전 90㎏ 이하 급에서 금메달을, 이희중은 개인전 81㎏ 이하 급에서 은메달을, 문길주(이상 국군체육부대)는 개인전 60㎏ 이하 급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태권도는 광주 김유진(남자 대학부·-74㎏급·조선대 4년)과 김제엽(남자일반부 -63㎏급·한국가스공사) 금메달을 비롯해 은메달 2(김미소 조선대 3년·김지혜 광산구청), 동메달 9개로 선전하고 있다.

육상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정경진(조선대 3년)은 20일 멀리뛰기 동메달에 이어 22일 세단뛰기에서 금메달(15.42m)을 목에 걸었다. 김민(목포시청) 역시 여자 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1.74m를 던져 지난해 대회 2위 성적을 설욕하는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 강성권(한국체대 3년)은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에서 2위(1분6초53)로 골인했다.

올해 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남자일반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김현재(조선대 2년)가 속도 부문 2위를, 김홍일(〃 1년)이 난이도 부문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스쿼시 강영진·김가혜·박은옥(광주시체육회) 조는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경남팀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체조 한소리(광주체고 3년)도 여고부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올랐다.

한편 22일(오후 7시 기준) 현재 광주는 금 24, 은 36, 동 52 개, 전남은 금 28, 은 39, 동 35개를 획득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